

1 러브식 걸즈, 스포티파이 '글로벌차트 톱3'

(타이틀곡) (세계 최대 음반 스트리밍 플랫폼)

- 2 수록곡 4곡 스포티파이 톱10
- 3 앨범 선주문량 100만장 돌파
- 4 타이틀곡 57개국 아이튠즈 1위
- 5 뮤비 공개 하루만에 6000만뷰



'기록의 소녀들...'. 블랙핑크(왼쪽부터 지수, 제니, 리사, 로제)가 데뷔 4년 만에 발표한 첫 정규앨범으로 전 세계 차트에서 1위를 기록 중이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기록 행진을 시작했다.

2일 내놓은 정규 1집 '디 앨범'(THE ALBUM)으로 발표와 동시에 전 세계 각종 차트를 휩쓸고 있다. 다음 주 나올 미국 빌보드 차트 상위권 진입 가능성도 키우면서 앞서 흥행 기록을 써 내려간 방탄소년단의 바통을 이어받았는지 관심이 쏠린다.

'디 앨범'은 블랙핑크가 데뷔 4년 만에 처음 발표한 정규앨범이라는 점에서 이미 전 세계 팬들의 기대를 높여왔다. 앨범에는 멤버 지수와 제니가 작사, 작곡한 타이틀곡 '러브식 걸즈'를 비롯해 미국 여성 래퍼 카디 비가 피쳐링한 '벳 유 워너' 등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힙합, 팝, 댄스, 리듬앤드블루스(R&B) 등 여러 장르를 한 데 묶어 8곡을 수록했다.

4일 오후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 50'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러브식 걸즈'로 3위를 차지했다. 스포티파이는 세

계에서 2억 명이 가입한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세계 양대 팝음악 차트인 미국 빌보드 및 영국 오피셜 차트 순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 음원을 대상으로 일간 스트

리밍을 기준으로 순위를 낸다. 또 '러브식 걸즈'는 세계 57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도 1위를 휩쓸었다. 블랙핑크는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벳 유 워너' 4위, '프리티 세비지' 8위, '아

이스크림' 10위 등 이번 앨범 수록 8곡 가운데 절반을 '톱 10' 안에 올려놓았다. 이 밖에도 '크레이지 오버 유' 17위, '러브 투 헤이트 미' 18위, '하우 유 라이크 댓' 19위, '유 네버 노우' 25위 등 다른 수록곡도 상위권에 자리했다.

6일 출시하는 실물 앨범(CD)으로는 선주문 수량 100만장(한국 67만장, 미국·유럽 34만장)을 넘겼다. 케이팝 걸그룹 단일 음반으로는 역대 최대 초동(발매 첫 주 판매량) 기록이다. 한정판 LP로 발매하는 1만8888장도 매진됐다. 2일 음원과 함께 공개한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는 하루 만에 조회 수 6000만건을 넘겼다.

이처럼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블랙핑크는 유튜브 구독자 5000만명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날 정규 1집 발표 이후 구독자가 80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핑크는 팝스타 저스틴 비버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튜브 구독자가 많은 아티스트로 꼽힌다.

이들의 앨범에 대해 영국 가디언은 별 4개(다섯 개 만점)를 주며 "치명적인 훅(hook·중독성 강한 짧은 후렴구)과 말끔한 디테일의 폭격"이라고 호평했다. "다만 노랫말의 주제가 협소한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조정석, 2020 브랜드대상서 '2관왕'



조정석

연기자 조정석이 '2020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올해의 남자배우상'과 '올해의 OST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이 매년 소비자 투표를 통해 각 분야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해 주는 상이다. 올해 55만여 소비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조정석은 작년 942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엑시트'와 5월 종영한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주연을 맡아 활약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삽입곡 '아로하'를 직접 불러 음원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헤리, 소아암 환자에 머리카락 기부



헤리

가수 겸 연기자 헤리가 5년간 기른 머리카락을 잘라 소아암 환자를 위한 가발 제작에 내놓기로 했다. 헤리는 2일 유튜브 채널 '헤리'를 통해 머리까지 기른 머리카락을 자르는 과정을 공개했다. 헤리는 "최소 15cm는 되어야 기부할 수 있는데 내 머리카락은 더 길고 많이 상하지 않아 기부할 수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직접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른 후 "나보다 더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며 "마음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4일 현재 80만 조회 수로 큰 공감을 받고 있다.

아리와 교제 인정한 려욱 "루머는 사실무근"

최근 걸그룹 타히티 출신 배우 아리(26)와 교제 사실을 인정한 슈퍼주니어 려욱(33)이 관련 루머에 정면 반박했다. 앞서 9월29일 려욱은 소속사 레이블SJ를 통해 "친한 선배 사이로 지내오다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려욱이 아리에게 카페를 차려주고, 아리가 신천지 신자라는 루머가 퍼졌다. 이에 려욱은 "내가 이야기해 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실과 다른 일들"이라고 해명했다. 아리도 교회 세례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루머들이)손이 떨리고 무섭다"고 반박했다.

편집 | 안도영·유진한 기자

빌보드 1위 탈환한 BTS, 240억 주식부자 예약

5·6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주당 13만5000원·경쟁률 1038대 1
상장가가 공모가 2배 뎀 1인당 240억



방탄소년단

그들 방탄소년단이 또 한번 날아오른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가 이달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6일 일반 공모주 청약을 마감한다. 이에 따라 각 멤버들이 최대 240억원의 주식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추석 연휴 직전이었던 9월28일 신곡 '다이내마이트(Dynamite)'로 빌보드 1위를 재탈환하고 새 앨범 소식까지 알리면서 더욱 큰 시선을 끌고 있다.

빅히트는 5일과 6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이미 전체 713만 공모주의 60%(427만8000주)를 차지하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는 당초 희망범위 상단인 주당 13만

50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우리사주조합을 뺀 일반 청약자가 나머지 20% 분량(142만6000주)에 대해 청약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증거금(약정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약하는 보증금 성격) 기준 100조원

이 몰릴 것이라 증권가 전망에 따르면 경쟁률은 최대 1038:1로 추산된다. 개인이 1억원을 넣어도 1주 밖에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방탄소년단이 그동안 일궈온 글로벌 성과와 미래 예상가치 등에 비해 경쟁률이 어느 선까지 치솟을지 관심거리다.

경우에 따라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최대 240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이들은 이미 빅히트 방시혁 대표로부터 각 7만여, 모두 47만8695여 보통주를 증여받아 13만5000원의 상단가 기준 1인당 92억3197만여원의 주식을 갖게 됐다. 실제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가 될 경우 1인당 240억원까지 치솟는다는 전망이다.

이번 공모에 이들의 팬덤인 '아미'들도 일

부 동참할 것으로 보이면서 방탄소년단은 더욱 탄탄한 팬층을 확보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아미'들이 '방탄소년단 주식'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을 최근 보도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은 이 같은 흐름을 공고히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디테일을 마련했다. 빌보드 최신(9일자) 싱글차트 '핫(HOT) 100'에서 9월5일 이후 2주 동안 1위를 차지한 뒤 이후 2주간 2위에 머물다 다시 1위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1월20일 오후 2시 새 앨범 'BE (Deluxe Edition)'를 선보인다. 또 이에 앞서 10일과 11일 온라인 콘서트 'BTS 맵 오브 더 솔:은:MAP OF THE SOUL ON: E)'를 펼친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흔들림없이 추진합니다

성경 기부경제학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반려동물 (개, 고양이) 까지 기본소득 150만원 지급 (선착순/가구당 1마리씩)

일자리도 없는데 대학가기 위해 **수능은 왜 보나?**
무식한 교육부야! / 등신 학부모야! / 철밥통 관료들야!
씩을 때로 씹어 준비와 다름없는 정치인들야

이생망, 헬조선, 흠수저, 자살송을 퍼트리며 자살하는
- 1030세대 (39세까지) 알

문의처
세계교회대혁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등록!!!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강시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초 010-6462-6712 / 역삼 황비 010-5647-5428 / 김석우 정국장 010-7653-5373 / 이주자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김영배 010-8290-8801 / 강영석 010-3274-5289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삼석 010-7309-1000 / 민영숙 010-5118-5263 / 김현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우영환 010-4741-7008
● 대구 조현교 010-7374-4111 / 서재윤 010-8770-2935 ● 대전 김진구 010-8029-0059 / 김용환 010-3742-5998 / 전달민 010-2391-8259 ● 대구 전영희 010-4846-4950
● 울산 지영원 010-8003-5323 / 최백수 010-4830-1810 ● 창원 이철배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 천안 김재덕 010-6258-3510 / 오명숙 010-8904-3424
● 인천 박요표 010-3227-0993 / 주인 용원표 010-6717-1779 / 서동원 010-3489-4190 / 김호중 010-8488-2999 ●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 아현 박찬석 010-4707-2659
● 원천희 010-5177-9479 ● 여주 장근명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원인드리아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김명태 010-8005-3616
● 경기 남부 황베드로 010-6806-1931 / 노수길 010-5153-5983 ● 평강 고명철 010-5463-6952 ● 중국 송동욱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학와이 윤이나 010-8763-8742

YouTube '1조원 기부 TV' (1, 2부)
동영상 시청 후 문의 바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 인류의 구세주
□ 21세기 제2의 석유
□ K-biz, K-pay, K-platform
□ 성경기부경제학
□ 자본공유앱APP
□ 선착순 자동레이 기부 품앗이게

하이우분투 (주)
Hibuntu 1644-6733